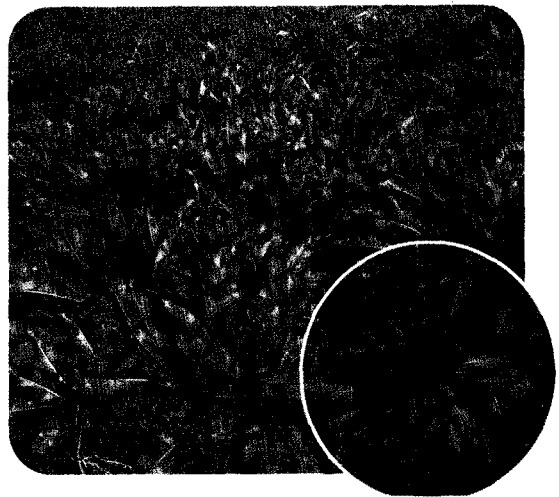


# 광엽잡초(외래잡초 2)

■ 이인용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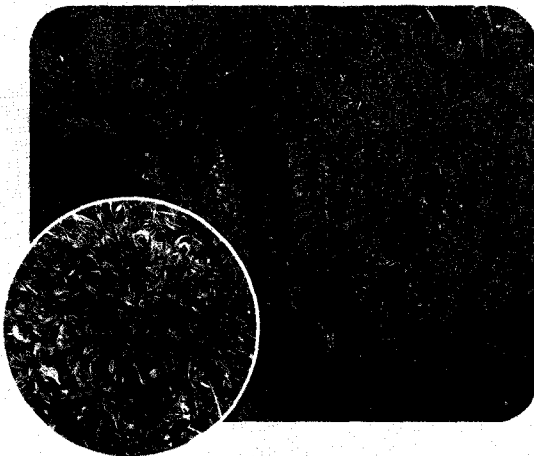
## 돌소리쟁이

유럽이 원산지인 외래잡초로 다년생이다. 농경지, 잔디밭, 목초지 등지에 침입하여 심한 잡초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수산(葸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사료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가축이 대량으로 섭식할 경우에는 중독을 일으켜 피부염 등을 유발시킨다. 종자와 지하경으로 동시에 번식하며, 종자는 토양에서 20~25년 생존하여 쉽게 방제할 수 없다. 제초제를 이용하여 방제할 경우에는 토양 및 경엽처리제를 각각 연 2회를 살포하여야 방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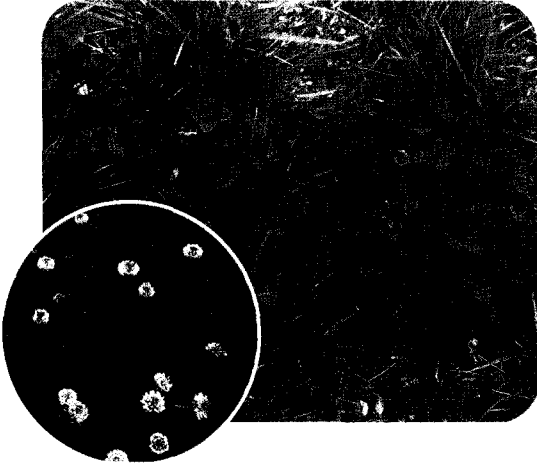


## 애기수영

유럽이 원산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는 다년생 외래잡초이다. 한 개체에서 연간 1,000~10,000개의 종자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토양 중에서 최장 80여년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목초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화분파목초에 발생한 애기수영은 디캄바액제나 메코프로프액제를 경엽처리하여 방제할 수 있다. 애기수영이 우점하였을 경우에는 2~3회 더 약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경종적인 방제로 산성토양에서 우점하고 일카리 토양에서는 그 발생이 억제되므로 석회를 시용하여 토양을 개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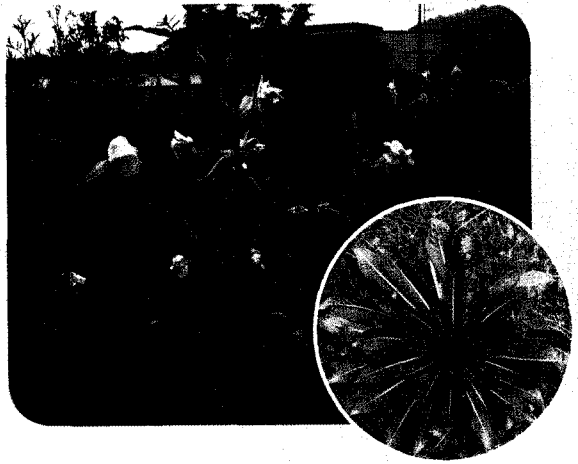
## 토끼풀



모든 경지 및 비농경지에 발생하는 다년생으로 종자와 포복경으로 번식한다. 콩파식물에 공생하는 뿌리혹박테리아가 공중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유기농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소나 양 등의 가축에게는 우수한 목초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잔디밭에 발생하면 양지식물인 잔디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죽게 하며, 다른 작물에서는 양분경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종자는 18~20℃ 조건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아되나 단명종자이다. 잔디밭에 발생한 경우 디캄바액제나 메코프로프액제를 경엽처리함으로써 방제가 가능하다.

## 달맞이꽃

번식력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나 흔히 자라는 식물이며 남아메리카 칠레 원산의 외래잡초이다. 산지, 밭, 밭둑, 물가, 길가 및 빈터 등에서 자란다. 종자는 한 포기에 100,000립 정도이며, 땅속에서 수년에서 수십년간 생존한다. 가을에 밭이를 하면 잎은 붉은 빛이 도는데, 납작하게 땅바닥에 움츠린 채 한 겨울을 난다(로제트형). 자라는 장소가 경작지가 아니라 밭둑, 길가, 공한지 또는 비농경지이므로 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발생하며, 종자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비선택성 제초제로 살포하여 방제할 수 있다.



## 미국자리공



1950년대에 미국의 구호물자와 함께 들어온 외래잡초로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유럽, 아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악취가 강한 다년생이다. 공단 등으로 산성화된 토양에 다른 종보다 번식을 잘하여 우점하여 확산되고 있다. 개체가 큰 관계로 농경지에는 잘 발생되지 않으나 주로 그늘진 주택 주변이나 폐허, 길가 특히 그늘진 경사지의 길가, 비옥한 목초지 등지에 생육한다. 초지 등에 발생할 경우 디캄바액제나 트리클로피르티에이액제 등으로 경엽처리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Y